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3호, pp. 201-223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Vol.14 No.3, 2024, pp. 201-223
https://doi.org/10.26606/kaac.2024.14.3.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장영진** · 권선중*** · 송원영****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국문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중고등학생 33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동성애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6문항 척도를 개발하였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성중독,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성중독 평균 점수와 성중독 수준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았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모양육태도와 동성애적 지향성은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동성애적 지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성별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부모양육태도와 동성애적 지향성이, 여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과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동성애적 지향성과 성중독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유용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어 : 청소년,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 성중독

---

* 이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하여 연구하였음.
** 주저자 및 교신저자,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Ⅰ. 서 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성 증가는 무분별한 성적 문화와 시각적 음란물의 지속적인 노출로 이어지며, 이는 중독성 있는 성행위를 조장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Riemersma & Sytsma, 2013: 312-313).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성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성중독에 이르지 않더라도 중독 성향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개인적인 고통과 부정적인 성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Cooper, Delmonico, Griffin-Shelley & Mathy, 2004: 315). 청소년기는 중독 대상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전전두엽피질과 세로토닌 체계의 미숙함으로 인해 다른 연령층보다 중독에 더욱 취약하다(Chamber, Taylor & Potenza, 2003: 1046). Riemersma 등(2013: 315)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성적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의 신경화학적, 사회적, 성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현대 성중독의 급속한 발병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초등학생 40.0%, 중학생 46.1%, 고등학생 56.6%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8년 19.6%였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로 인해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성인용 영상물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청소년 성중독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남영옥, 이상준(2002)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1,692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7.6%가 사이버 성중독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영희(2005)의 연구에서는 10대~30대 인터넷 이용자 2,261명을 조사한 결과, 15%가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음란사이트나 음란 채팅에 집착하는 사이버 성중독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명숙(2012)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4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5%가 사이버 섹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중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 또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청소년 성중독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청소년 성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성범죄, 음란물 중독, 사이버섹스 중독에 집중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성중독 연구는 매우 미미하여, 이로 인해 청소년 성중독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김수완, 2023: 60).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가 성중독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려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이버 성중독의 경향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남영옥, 2002; 우형진, 이정기, 2012; 홍성례, 정여주, 2012).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성중독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김석희, 2020; 김성, 2011; 김효정, 나종연, 2017; 남영옥, 200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는 성중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 관련 문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동성애 문제일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데일리 굿뉴스, 2019.6.12). 한국청소년상담원(2003)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2,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는 동성애 성향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에 1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동성과의 애정표현을 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였다. 국가인권위원회(2005)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5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실제로 만난 교사가 43.6%로 나타났다.

동성애가 성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동호(2015)의 연구가 유일하며,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 성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서는 동성애 문화에 의해 10대 동성애 청소년들이 성중독이 될 확률이 높고(Kort, 2004),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중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őthe et al., 2017; Paz, Denetrovics & Szabo, 2021). Weinstein, Katz, Eberhardt, Cohen & Lejoyeux(2014)의 연구에서는 여성 동성애자가 여성 이성애자보다 강박적 성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의 성중독 위험과 동성애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성애적 지향성이 청소년의 성중독 발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성중독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 학교급에 따른 각 변인을 비교하고,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중독,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성중독

성중독(sexual addiction)이라는 용어는 1983년 Carnes의 저서 '그림자 밖으로'(Out of the Shadows: Understanding Sexual Addiction)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그는 개인이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는 것처럼 성행동에도 중독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강박적 성행동을 중독으로 개념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Carnes 등(2012: 29)은 성중독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과도한 성적 충동과 성 관련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성행동을 지속하는 증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성중독에 대한 진단기준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2013)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이 용어와 개념의 사용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성중독은 강박적 성행동(compulsive sexual behavior), 과잉성욕장애(hypersexual disorder)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성중독과 강박적 성행동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ancroft & Vukadinovic, 2004: 234).

강박적 성행동은 과도한 성적 환상, 충동, 갈망과 같은 생각 또는 일상에서 주관적인 고통이나 장애를 유발하는 성적 행동 조절의 어려움을 뜻한다(Kraus, Voon & Potenza, 2016: 27). 성중독을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로 이해한 연구에 따르면, 성중독자는 불안이나 긴장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성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1991: 48). 그러나 성중독을 강박장애로 보는 주장은 성행동과 강박적 행동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한 선행연구 결과(Black, Kehrberg, Flumerfelt & Schlosser, 1997; Kafka & Prentky, 1997)와 강박장애와 성중독 간의 공병률이 15% 이하라는 연구결과(Raymond, Coleman & Miner, 2003: 373)로 인해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른 관점으로는 성중독자의 행동 특성이나 심리적 상태를 통해 이를 물질 및 행동 중독으로 진단하는 것인데, 이 관점은 성중독을 도박 중독과 같이 행동 중독의 범주로 고려하는 것이다(Rosenberg, Carnes & O'Connor, 2014: 84). 성중독은 물질사용장애의 여러 임상적 특성을 공유하며(Goodman, 2001: 195), 성중독과 도박 중독 사이에도 유사한 생물학적, 심리적 과정과 뇌 기능 장애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nt & Steinberg, 2005: 236; Reid, Carpenter & Lloyd, 2009: 48).

그러므로 이러한 생화학적 모델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마약처럼 성행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성중독자는 불쾌한 감정, 업무상의 어려움이나 대인관계 문제와 같은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성적 활동을 사용하는데, 이는 약물 중독

자의 행동 패턴과 다르지 않다. 중독된 뇌는 약물이나 성행동으로서 얻은 모든 보상을 생화학적 보상으로 만들면서 중독자의 몸을 속이고, 이는 중독자에게 죄책감이나 후회, 심지어 변화에 대한 약속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중독 사이클을 만든다(Herkov, 2010: 264-265). 이처럼 성중독 연구는 최근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성중독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성중독과 관련된 여러 모형들을 검토한 결과, 중독적 접근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Hartman, Ho, Hambley & Lawson, 2012; Goodman, 2001; Kraus, 2016).

2018년 국제질병기준인 ICD-11(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 ICD-11)에서는 성중독에 적용 가능한 진단으로 '강박적 성행동 장애(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를 명명하였다. 이 장애는 '격렬하고 반복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에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이 발생함에도 반복적인 성행동을 지속하는 패턴'으로 정의되며, 충동 조절 장애의 범주로 포함되었다.

Kraus 등(2018: 109)에 따르면, ICD-11에서 강박적 성행동 장애가 행동 중독의 발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물질 중독 및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관찰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ICD-11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여 강박적 성행동 장애를 충동 조절 장애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자는 성중독이 물질사용장애와 여러 임상적 특성을 공유하고(Goodman, 1993, 2001; Hartman 등, 2012; Wines, 1997), 생물학적 과정에서도 유사성이 있으며(Schmitz, 2005), 성중독과 도박장애 역시 유사한 생물학적 및 심리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연구 결과(Grant 등, 2005; Reid 등, 2009)를 바탕으로 성중독이 물질 및 행동 중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관점에 동의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김성희 등(2018)이 DSM-5의 물질사용장애, 도박장애 준거와 Section-Ⅲ에 제시된 인터넷 게임 장애 준거를 활용하여 개발한 성중독 척도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William James(1890)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인간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즉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성취 수준으로 정의된다. 자아존중감은 아동과 청소년 발달의 중심적인 요소로 여겨지는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발달 변화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에 하나이다(홍성례, 2010).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를 통해 SNS 중독 경향성(이은숙, 이경순, 2018), 인터넷 중독(우수정,

2018), 스마트폰 중독(여종일, 2016) 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다양한 중독 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를 통해 성중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nes(2001: 108)는 성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 중 무가치한 자아상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남영옥(2002)과 홍성례 등(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사이버 성중독과의 관계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우형진 등(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포르노 몰입 정도와 중독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아존중감은 사이버 섹스 중독을 포함한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Becker (1964)의 개념을 사용하여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로서 자녀에 의해 지각되는 반응 양식으로 정의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과 분별된 부모 지지의 제공은 청소년의 비행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고(엄병용, 2001),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이 부모의 양육 행동임이 연구되었다(김용석, 박명숙, 2000).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중독 경향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NS 중독 경향성(김수진, 김수미, 박하은, 2020), 인터넷 중독(김재경, 김윤주, 2011; 장재홍, 2004), 스마트폰 중독(임성범, 2017), 도박 중독(김혜진 등, 2016) 등이 부모양육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김성(2011: 115)의 연구에서는 성중독자의 특징 중 성장기에 부모에게 받아야 하는 정서적 욕구가 좌절되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을 받았고, 이러한 정서적 욕구의 결핍으로 인해 여성들의 품과 스킨쉽, 정신적인 교감을 갈구하는 결핍 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이 성적 관계나 성행동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김석희(2020)의 연구에서도 양육자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부모의 부재로 인한 안정애착의 실패가 성중독을 발병시키는 요인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남영옥(2002, 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사이버 성중독, 음란물 중독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효정 등(201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감독과 애정이 청소년의 성인 매체 중독을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4. 동성애

‘동성애(Homosexuality)’의 어원은 같음을 뜻하는 ‘Homo’와 성적인 매력을 뜻하는 라틴어 ‘Sexus’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 용어는 1869년 헝가리 의사 벤커르트(Karl Maria Benkert)

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동성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정신의학회(2012: 11)는 성적 지향을 개인이 성적 및 로맨틱하게 끌림을 느끼는 대상의 성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신과 다른 성별에 끌리는 경우를 이성애(heterosexuality), 동일한 성별에 끌리는 경우를 동성애(homosexuality), 그리고 양쪽 성별 모두에 끌리는 경우를 양성애(bisexuality)로 구분할 수 있다.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1980년대 이전에는 성적 기호(sexual preference)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심리학 문헌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쓰이는 추세이다. 성적 기호는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보다 생물학적인 면에서 사랑과 성욕의 표현과 관심을 내포하고 있는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윤가현, 1997: 33). 이처럼 동성애는 단지 동성과의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에게 다양하고 통합적인 지속적 끌림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88). 그러나 동성애와 성적 지향은 개념적으로 추상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 행동적 준거에 대해 학문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여러 학회와 국제기구들이 동성애를 장애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더이상 동성애에 대한 개념화를 할 이유나 근거를 잃게 되었다(권선중, 2019: 338).

성인 동성애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성과학연구소(2011)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남성 1.1%, 여성 0.3%가 동성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질병관리청(2023)은 전국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중 동성과 성관계에 관한 문항에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2.7%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질병관리청이 2021년에 발표한 동일 문항에서의 응답률인 1.6%와 비교하여 약 1.1% 증가한 수치이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상담원(2003)은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생 2,28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급(40명)당 동성애 성향이 있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없다(46.9%)'였으며, 다음으로는 '1명(15.7%)', '2명(14.4%)', '3명(5.1%)' 순이었다. 이영식, 전창무, 김소연, 고복자(2005)의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1,748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성을 조사한 결과, 남중생의 17.2%, 남고생의 5.4%, 여중생의 17.7%, 여고생의 12%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고, 심각한 동성애적 성향은 남중생 3.1%, 남고생 1.7%, 여중생 3.3%, 여고생 2.1%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동성애자 비율은 동성애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의 비율은 평균 1~2%대로 나타났다. 반면, 동성애적 지향성을 고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성인 비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나이가 어릴수록 동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더욱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2006)의 조사에서 6,160명의 청소년 중 5.8%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2013)의 조사에서는 1,078명의 남녀 중학생 중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거나 성전환수술을 생각해봤다는 청소년이 6.4%, 동성과의 스킨쉽을 생각해봤다는 청소년은 3.9%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해 혼란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정확한 준거나 증상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과 미디어, 과거의 경험 등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는 명명을 섣부르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98). 그러므로 자신의 동성애적 지향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추측하거나 섣불리 단정 짓지 않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Crisp & McCave, 2007: 416).

동성애와 성중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에서는 이동호(2015)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248명과 이성애자 227명을 대상으로 관계중독 척도의 성중독을 측정하였고, 동성애자 집단이 이성애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성중독 수준을 보였다. 외국의 여러 선행연구들(Bőthe et al., 2017; Paz et al., 2021)은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 성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남성은 성행동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Rooney, Tulloch, 및 Blashill(2017)의 연구에서도 남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 일반인보다 강박적 성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며, 그 비율은 약 19~30%로 보고되었다. Litchfield(2002: 173)는 동성과의 성관계를 동반한 동성애는 성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동성애가 중독이 될 때, 이는 다른 성중독처럼 취급되며 12단계 지원 그룹인 성중독자 익명모임(Sex Addicts Anonymous)의 전 회원의 약 3분의 1이 동성애자라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동성애자는 성중독의 위험이 이성애자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성애적 성행동이 성중독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성인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동성애적 지향성을 가진 청소년은 성인 동성애자와 비교하면 성적 정체성이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행동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성인 동성애자는 주로 동성과 성관계를 맺지만, 청소년 동성애자는 성인보다 낮은 수치로 성관계를 맺고, 성별에 따른 성행동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성애적 지향성을 측정하고,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국내 조사업체(E사)에 의뢰하여 확보하였다. 조사 내용을 척도 설문지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E사는 이를 온라인 설문지로 변환하여 연구 참여자가 PC 또는 모바일로 응답하게 하였다. 온라인 실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4일 동안 진행되었고 331명이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를 보면 남성은 45%(149명), 여성은 55%(182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생 28.4%(94명), 고등학생 71.6%(237명)으로 고등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26.6%(88명), 경기 27.8%(92명)로 수도권이 전체의 54.4%(180명)를 차지하였다.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발된 동성애적 지향성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살피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입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인구학적 특성	빈도(n)	퍼센트(%)
전체		331	100
성별	남자	149	45
	여자	182	55
학력	중학생	94	28.4
	고등학생	237	71.6
거주지역	서울	88	26.6
	부산	22	6.7
	대구	17	5.2
	인천	23	6.9
	광주	6	1.8
	대전	10	3.0
	울산	4	1.2
	경기	92	27.8
	강원	6	1.8
	충청	16	4.8
	전라	20	6.0
	경상	27	8.2

2. 측정도구

1) 동성애적 지향성 척도

청소년의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기준을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지도교수, 박사 1명, 박사과정 1명과 함께 권선중(2019)이 제시한 성적 지향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준거를 참고하여 총 여섯 문항을 만들었다. 성적 지향을 검토하는 준거로는 첫째 '동성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가거나 로맨틱한 감정이 느껴진다', 둘째 '동성에게 성적 흥분이 느껴진다'를 참고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평정하도록 구성한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본 척도의 타당도를 포함한 모든 심리측정적 속성은 결과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2) 자아존중감 척도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000)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역채점 문항(2번, 5번, 6번, 8번, 9번)은 제외하고, 나머지 5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아주 그렇다'(3)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조사에서 측정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19로 우수하였다.

3) 부모 양육 태도 척도

부모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er 등(1979)에 의해 제작된 부모-자녀 결합 형태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가 과거 자신을 대하는 부와 모의 양육 태도를 회상적으로 보고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PBI는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경주, 오경자(2002)는 문항의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 2개의 요인에서 3개의 요인으로 다시 지정하였다. 요인 1에 해당하는 11문항은 애정으로, 요인 2에 해당하는 6문항은 과잉 간섭으로, 요인 3에 해당하는 7문항은 자율성 존중으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3요인으로 나누어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가장 큰 3문항씩을 선별하여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아주 그랬다'(3)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조사에서 측정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34이었으며, 1번부터 3번 문항까지를 애정 요인으로 구성하여 신뢰도는 .837이었으며, 4번부터 6번 문항까지를 과잉간섭 요인으로 구성하여 신뢰도는 .822이었으며, 7번부터 9번 문항까지를 자율성 존중으로 구성하여 신뢰도는 .807로 나타났다.

4) 성중독 척도

김성희, 김예나, 권선중(2018)이 DSM-5(APA, 2013)의 '물질사용장애' 및 '도박장애' 준거와 Section-Ⅲ에 제시된 '인터넷 게임 장애'의 준거를 참고하여 개발한 성중독 척도(Sex Addiction Scale; S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중독에 관한 갈망, 금단, 내성, 조절 실패, 일상생활 장애 등을 묻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니다'(0)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3)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선별 및 분류를 목적으로 각 문항별 응답에 기초하여, 0점(아니다)에 응답한 경우 '0점'으로, 1~3점('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거의 항상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 '1점'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일상생활 장애' 준거는 9번, 10번 두 문항이므로 두 문항 모두 0점을 준 경우 '0점'으로, 최소 1문항에서 1점 이상을 준 경우 '1점'으로 변환하였다. 성중독 문제 수준에 따라 0~1개를 '일반군', 2~3개를 '위험군', 4개 이상을 '문제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측정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62로 우수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특성

1) 동성애적 지향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여섯 문항을 활용하여 주축요인분해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0.768에서 0.938 사이로 나타나는 안정적인 단일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고, 내적 일관성 계수로 확인한 여섯 문항의 신뢰도는 0.9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은 없었다(〈표 2〉 참고).

〈표 2〉 동성애적 지향성 척도의 문항분석 결과

문항	공통분	요인 부하량	*M(SD)*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신뢰도
1. 나는 동성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간다.	.590	.938	.90(1.02)	.752	0.945
2. 나는 동성에게 로맨틱한 감정이 느껴진다.	.880	.914	.57(.95)	.906	0.925
3. 나는 동성에게 애정표현을 하고 싶다.	.758	.887	.70(1.05)	.848	0.933
4. 나는 동성에게 성적 흥분을 느낀다.	.835	.871	.46(.85)	.877	0.930
5. 나는 동성을 생각하며 성적인 행동을 한다.	.660	.812	.38(.82)	.782	0.941
6. 나는 동성과의 신체 접촉을 원한다.	.787	.768	.57(.98)	.856	0.932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표 3〉의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 성중독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성중독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동성애적 지향성(r=.32)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r=−.24)와 자아존중감(r=−.19)이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전체 변인 중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r=.49)를 보였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1. 성중독	1			
2. 자아존중감	−.19**	1		
3. 부모양육태도	−.24**	.49**	1	
4. 동성애적 지향성	.32**	−.19**	−.29**	1
평균	2.62	9.40	18.38	3.59
표준편차	5.18	3.46	4.63	5.05
최대값	27	15	27	24
최소값	0	0	5	0
첨도	6.28	−.02	−.56	1.57
왜도	2.56	−.29	−.07	1.52

** p<.01

3) 주요 변인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차이

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성중독의 차이는 t=3.115로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성중독 수준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급에 따른 성중독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 등의 다른 변인들은 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주요 변인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차이 (n=331)

	변수	구분	n	*M*	*SD*	*t*
성중독	성별	남자	149	3.59	6.39	3.115***
		여자	182	1.83	3.77	
	학교급	중학생	94	2.83	5.32	.451
		고등학생	237	2.54	5.13	
자아존중감	성별	남자	149	9.34	3.60	−.298
		여자	182	9.45	3.35	
	학교급	중학생	94	9.22	3.45	−.582
		고등학생	237	9.47	3.47	

	변수	구분	n	*M*	*SD*	*t*
부모양육태도	성별	남자	149	18.39	4.46	.031
		여자	182	18.37	4.78	
	학교급	중학생	94	18.16	4.36	−.567
		고등학생	237	18.47	4.74	
동성애적 지향성	성별	남자	149	3.25	5.30	−1.091
		여자	182	3.86	4.84	
	학교급	중학생	94	3.89	5.44	.666
		고등학생	237	3.46	4.89	

$^{***}p<.001$

성중독 문제 수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DSM-5에서 제시한 9개 준거를 기반으로 행동중독(도박장애)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0~1개 준거를 충족하는 경우를 '일반군', 2~3개 준거를 충족하는 경우를 '위험군', 4개 이상의 준거를 충족하는 경우를 '문제군'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성중독 문제 수준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331명 중 68.6%(227명)가 일반군, 12.4%(41명)가 위험군, 19%(63명)가 문제군에 해당하였다. 즉, 위험군과 문제군을 합한 비율인 31.4%(109명)가 성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중독 문제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이었다(x^2=7.473, $p<.05$). 성별에 따른 성중독 문제 수준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전체 149명중 63.8%(95명)가 일반군, 10.7%(16명)가 위험군, 25.5%(38명)가 문제군에 속했다. 여자 청소년은 전체 182명중 72.6%(132명)가 일반군, 13.7%(25명)가 위험군, 13.7%(25명)가 문제군으로 나타났다. 위험군과 문제군을 합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이 36.2%(54명), 여자 청소년이 27.4%(50명)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성중독의 위험에 더 높은 비율로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x^2=.150, $p>.05$)은 성중독의 문제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성중독 문제 수준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차이 (n=331)

변수	구분	일반군	위험군	문제군	총합	x^2
전체		227(68.6%)	41(12.4%)	63(19.0%)	331(100%)	
성별	남자	95(63.8%)	16(10.7%)	38(25.5%)	149(100%)	7.473*
	여자	132(72.6%)	25(13.7%)	25(13.7%)	182(100%)	
학교급	중학생	64(68.1%)	11(11.7%)	19(20.2%)	94(100%)	.150
	고등학생	163(68.8%)	30(12.7%)	44(18.6%)	237(100%)	

$^{*}p<.05$

2.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방법은 모든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Enter)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16.785(p<.001)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R^2= .125로 1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모양육태도는 성중독에 유의미한 영향(β =−.128,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부적이므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중독 수준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적 지향성은 성중독에 유의미한 영향(β =.27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정적이므로 동성애적 지향성이 클수록 성중독 수준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와 동성애적 지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로 비교한 결과는 동성애적 지향성이 부모양육태도보다 성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2	F
	B	SE	β			
(상수)	5.278	1.240		4.258***	.125	16.785***
자아존중감	−.109	.089	−.073	−1.234		
부모양육태도	−.143	.068	−.128	−2.108*		
동성애적 지향성	.280	.055	.273	5.063***		

*p<.05, ***p<.001

3.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1)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방법은 모든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Enter)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7.600(p<.001)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R^2=.118로 11.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모양육태도는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β =−.222,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부적이므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중독 수준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적 지향성은 성중독에 유의미한 영향(β = .243,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성애적 지

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정적이므로 동성애적 지향성이 클수록 성중독 수준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와 동성애적 지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로 비교한 결과는 동성애적 지향성이 부모양육태도보다 성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2	F
	B	SE	β			
(상수)	7.984	2.354		3.392**	0.118	7.600***
자아존중감	.054	.163	.030	.330		
부모양육태도	−.318	.138	−.222	−2.308*		
동성애적 지향성	.293	.099	.243	2.957**		

*p<.05, **p<.01, ***p<.001

2)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방법은 모든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Enter)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15.184(p<.001)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R^2=.190로 1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부모양육태도는 성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아존중감은 성중독에 유의미한 영향(β =−.189,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부적이므로 자아존중감이 클수록 성중독 수준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적 지향성은 성중독(β =.243,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정적이므로 동성애적 지향성이 클수록 성중독 수준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동성애적 지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로 비교한 결과는 동성애적 지향성이 자아존중감보다 성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2	F
	B	SE	β			
(상수)	3.445	1.161		2.968	0.190	15.184***
자아존중감	−.212	.085	−.189	−2.501*		
부모양육태도	−.036	.060	−.046	−.602		
동성애적 지향성	.272	.054	.350	5.021***		

*p<.05, ***p<.001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선중(2019)이 제시한 성적 지향 탐색 준거를 참고하여 청소년의 동성애적 지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2013)의 연구에 따르면 약 6%의 청소년들이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거나 확립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05)의 연구에서는 43.6%의 중고등학교 교사가 성적 소수자 학생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의 탐색 기준은 개인의 경험, 선호, 취향 등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권선중(2019)의 성적 지향 탐색 기준을 참조하여 성적 지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성적 지향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 교육자에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성적 지향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척도에 대한 정교한 타당화 분석은 향후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성중독을 측정한 평균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성중독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은 성별, 학교급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중독 문제 수준에서 위험군과 문제군을 합친 비율은 남자 청소년이 36.2%, 여자 청소년이 27.4%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이 성중독 문제 수준에서도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성중독에서 문제군의 비율은 남자 청소년이 25.5%, 여자 청소년이 13.7%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성중독이 발생할 가능성과 문제 수준의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영옥(2002)과 김효정 등(201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성중독 경향이 높으며, 성별이 성중독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Cooper, Morahan, Mathy & Maheu, 2002: 139).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중독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및 상담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성중독의 위험군과 문제군을 합한 청소년의 비율은 31.4%, 문제군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준(2003)의 연구에서 7.8%, 김성숙, 구현영(2007)의 연구에서 중독 상태인 청소년이 7.7%, 윤명숙(2012)의 연구에서 경미한 중독 수준에서 심각한 중독 수준을 합한 비율이 23.5%인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성중독 측정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성중독 상태인 청소년의 비율이 이미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중독 문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양육태도는 성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동성애적 지향성은 성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중독 수준이 낮아지며, 동성애적 지향성이 클수록 성중독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와 동성애적 지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동성애적 지향성이 부모양육태도보다 성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의 주요한 예측 변인임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부모양육태도 및 동성애적 지향성과 비교하여 성중독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으며, 성적 행동이나 성적 지향과 관련된 자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남자 청소년의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성중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양육태도는 남자 청소년의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자 청소년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성애적 지향성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에게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표준화 계수를 비교한 결과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성중독의 접근과 이해가 성별에 따라 달라야 함을 시사하며,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선 표집을 실시하였으나, 표본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가 33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표본을 확보하고, 표본 수를 확대하여 결과의 신뢰도와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형 설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응 편향이나 왜곡과 같은 측정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동성애적 지향성과 성중독과 같은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거나 질문자의 의도를 추측하여 응답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추가하거나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동성애적 지향성과 성중독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청소년의 동성애적 지향성과 성중독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 결과, 동성애적 지향성이 자아존중감이나 부모양육태도보다 성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 시기의 성적 정체감 변화와 혼란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성중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Riemersma 등(2013: 313)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적 콘텐츠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중독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청소년의 성중독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가족부(2022)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0%가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청소년 성중독 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 성중독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5).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발간 프로젝트 보고서. https://lgbtqact.org/wp-content/uploads/2013/05/성적소수자-학교내-차별사례모음집.pdf

권선중. (2019). 동성애, 성경에 길을 묻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김석희. (2020). 성 중독이 되는 요인 및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1), 9-48.

김성. (2011). 성중독자의 심리적 경험.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대학원.

김성숙, 구현영. (2007). 아동, 청소년 상담: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인터넷 중독 및 성태도의 관계. 상담학연구, 8(3), 1137-1149.

김성희, 김예나, 권선중. (2018). DSM-5 준거에 기초한 성중독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3(1), 41-56.

김수완. (2023). 성 중독 관련 국내 연구의 동향 및 전망: 2000년에서 2022년 연구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수진, 김수미, 박하은. (2020).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SNS 중독경향성이 초등학생의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89-101.

김용석, 박명숙.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김재경, 김윤주. (201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교육연구, 5(2), 139-158.

김혜진, 박재희, 유지원, 이수현, 이지은, 임소정, 장우주, 지연주, 최민정, 김석선, 박향진. (2016). 남자대학생의 정신건강, 부모양육태도, 애착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화간호학회지, 50, 1-15.

김효정, 나종연. (2017). 부모의 양육 방식, 또래 및 교사 관계가 청소년 성인 매체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6), 567-580.

남영옥, 이상준. (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85-212.

남영옥. (2002).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및 사이버성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문제행동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0, 173-207.

남영옥. (2005).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음란물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청소년학연구, 12(3), 363-388.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1(1), 29-43.

사단법인 한국성과학연구소. (2011. 12. 15.). 성인남녀 1000명 특별설문 2011 대한민국 성의식 보고서. https://sexacademy.org/issue/280257에서 검색.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13. 12. 11.). 2013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https://ahacenter.kr/dat/2013-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에서 검색.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2.

심영희. (2005). 사이버 섹스: 새로운 친밀성의 가능성인가? 아시아여성연구, 44(2), 101-133.

엄병용. (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148-176.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30에서 검색.

여종일. (2016). 남녀중학생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증상의 관계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 129-152.

우수정. (2018).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771-786.

우형진, 이정기. (2012). 대학생들의 인구통계적 속성, 미디어 이용량, 자존감 수준과 안정성이 인터넷 포르노 몰입 및 중독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6(3), 55-84.

윤가현. (1997).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윤명숙. (2012). 청소년의 성의식 · 성태도 · 성행동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윤인경. (2019. 6. 12.). 달라지는 동성애 인식, 이대로 괜찮나. 데일리굿뉴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8413에서 검색.

이동호. (2015). 남성 동성애자의 감각추구 성향, 수동공격, 자기수용, 외로움 및 관계중독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대학원.

이상준. (2003).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341-364.

이영식, 전창무, 김소연, 고복자. (2005). 성주체성 문제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성 개방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6(2), 231-238.

이은숙, 이경순. (2018). 소셜미디어 중독경향성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교육공학연구, 34(3), 495-523.

임성범.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1), 68-105.

질병관리청. (2023). 2023년 일반 국민 에이즈 지식 · 신념 · 태도 및 행태조사.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1070804에서 검색.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청소년의 고민: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홍성례, 정여주. (2012). 성별, 자아존중감 및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가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통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69-82.

홍성례. (2010).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151-16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American Psychologist, 67*(1), 10-42. doi:10.1037/a0024659

Bancroft, J., & Vukadinovic, Z. (2004). Sexual addiction, sexual compulsivity, sexual impulsivity, or what? Toward a theoretical model.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1*(3), 225-234. doi:10.1080/00224490409552230

Black, D. W., Kehrberg, L. D., Flumerfelt, D. L., & Schlosser, S. S. (1997). Characteristics of 36 subjects reporting compulsive sexu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243-249. doi:10.1176/ajp.154.2.243

Bőthe, B., Bartók, R., Tóth-Király, I., Reid, R. C., Griffiths, M. D., Demetrovics, Z., & Orosz, G. (2018). Hypersexuality,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A Large-Scale Psychometric Survey Stud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7*, 2265-2276. doi:10.1007/s10508-018-1201-z

Carnes P., Green, B., Merio, L. J., Polles, A., Carnes, S., & Gold, M. S. (2012). PATHOS: A brief screening application for assessing sexual addiction. *Journal of Addict Med, 6*(1), 29-34. doi:10.1097/ADM.0b013e3182251a28

Carnes, P. (2001). *Out of the Shadows: Understanding Sexual Addiction* (3rd. ed.). Center City, MN: Hazelden.

Chamber, R. A., Taylor, J. R., & Potenza, M. N. (2003). Developmental neurocircuitry of motivation in adolescence: a critical period of addiction vulnerabi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6), 1041-1052. doi:10.1176/appi.ajp.160.6.1041

Coleman, E. (1991). Compulsive sexual behavior: New concepts and treatments. *Journal of Psychology & Human Sexuality, 4*, 37-52. doi:10.1300/J056v04n02_04

Cooper, A., Delmonico, D. L., Griffin-Shelley, E., & Mathy, M. R. (2004). Online sexual activity: An examination of potentially problematic behavior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The Journal of Treatment & Prevention, 11*, 129-143. doi:10.1080/10720160490882642

Cooper, A., Morahan-Martin, J., Mathy, R. M., & Maheu, M. (2002). Toward an increased understanding of user demographics in online sexual activitie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8*(2), 105-129. doi:10.1080/00926230252851861

Crisp, C., & McCave, E. L. (2007). Gay affirmative practice: A model for social work practice with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4*, 403-421. doi:10.1007/s10560-007-0091-z

Goodman, A. (1993). Diagnosis and treatment of sexual addi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9*(3), 225-251. doi:10.1080/00926239308404908

Goodman, A. (2001). What's in a name? Terminology for designating a syndrome of driven sexual behavior.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8*, 191-213. doi:10.1080/107201601753459919

Grant, J. E., & Steinberg, M. A. (2005) Compulsive sexual behavior and pathological gambling.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2*, 235-244. doi:10.1080/10720160500203856

Hartman, L. I., Ho, V., Arbour, S., Hambley, J. M., & Lawson, P. (2012). Sexual addiction and substance addiction: Comparing sexual addiction treatment outcomes among clients with and without comorbid substance use disorder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The Journal of Treatment & Prevention, 19*(4), 284-309. doi:10.1080/10720162.2012.735515

Herkov, M. (2010). What is sexual Addic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36*(3), 261-275. doi:10.1080/00926231003719681

Kafka, M. P., & Prentky, R. A. (1997). Compulsive sexual behavior characteristic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1632. doi:10.1176/ajp.154.11.1632

Kort, J. (2004). Covert Cultural Sexual Abuse of Gay Male Teenagers Contributing to Etiology of Sexual Addict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The Journal of Treatment & Prevention, 11*(4), 287-300. doi:10.1080/10720160490900632

Kraus, S. W., Krueger, R. B., Briken, P., First, M. B., Stein, D. J., Kaplan, M. S., … & Reed, G. M. (2018). Compulsive sexual behaviour disorder in the ICD-11. *World Psychiatry, 17*(1), 109-110. doi:10.1002/wps.20499

Kraus, S. W., Voon, V., & Potenza, M. N. (2016). Should compulsive sexual behavior be considered an addiction? *Wiley Online Library, 111*(12). doi:10.1111/add.13297

Litchfield, B., & Litchfield, N. (2000). *Christian Counselling and Family Therapy*. Litchfield Family Services Centre(정동섭, 정성준 역. (2002).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Vol. 6. 서울: 예수전도단).

Paz, G., Griffiths, M. D., Denetrovics, Z., & Szabo, A. (2021). Rol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exual orientation in the risk for sexual addiction among Israeli men: Validation of a Hebrew sex addiction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9*(1), 32-46. doi:10.1007/s11469-019-00109-x

Raymond, N. C., Coleman, E., & Miner, M. H. (2003). Psychiatric comorbidity and compulsive/ impulsive traits in compulsive sexual behavior. *Comprehensive Psychiatry, 44*, 370-380. doi:10.1016/S0010-440X(03)00110-X

Reid, R. C., Carpenter, B. N., & Lloyd, T. Q. (2009). Assessing psychological symptom patterns of patients seeking help for hypersexual behavior.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24*, 47-63. doi:10.1080/14681990802702141

Riemersma, J., & Sytsma, M. (2013). A New Generation of Sexual Addict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20*(4), 306-322. doi:10.1080/10720162.2013.843067

Rooney, B. M., Tulloch, T. G., & Blashill, A. J. (2017). Psychosocial Syndemic Correlates of Sexual Compulsivity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A Meta-Analysi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7*(1), 75-93. doi:10.1007/s10508-017-1032-3

Rosenberg, K. P., Carnes, P., & O'Connor, S. (2014). Evaluation and Treatment of Sex Addi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40*(2), 77-91. doi:10.1080/0092623X.2012.701268

Schmitz, J. M. (2005). The interface between impulse-control disorders and addictions: Are pleasure pathway responses shared neurobiological substrate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2*(2-3), 149-168. doi:10.1080/10720160500203641

Weinstein, A., Zolek, R., Babkin, A., Cohen, K., & Lejoyeux, M. (2015). Sexual compulsion-Relationship with sex, attachment and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1), 22-26. https://doi.org/10.1556/JBA.4.2015.1.6

Wines, D. (1997).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criteria for substance dependence to sexual addict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4*, 195-220. doi:10.1080/10720169708404228

Abstract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Esteem,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and Homosexual Orientation on Sexual Addiction

Chang, Youngjin* · Kwon, Sunjung** · Song, Won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and homosexual orientation on sexual addiction, using data from 33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 6-item scale was developed to measure homosexual orientation. The findings showed that male adolescents had higher levels of sexual addiction than fema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elf-esteem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sexual addiction, but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and homosexual orientation did, with homosexual orientation being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dditionally, the analysis by gender indicated that for males, both parental attitudes and homosexual orient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while for females, self-esteem and homosexual orientation had significant impacts. Notably, in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homosexual orientation was the strongest independent predictor of sexual addiction.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addressing homosexual orientation in psychological therapy and education to manage sexual addiction and related mental health issues in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Self-esteem,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Homosexual orientation, Sexual addiction

* 장영진(張榮眞) :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동성애적 지향성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상담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2021. 2), 현재 건양대학교 박사과정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행동 중독이다.
E-mail : sarkil@naver.com

** 권선중(權宣中) : 충남대학교에서 "외상 경험과 침투적 재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공병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행동억제 경향성의 매개효과" 연구로 심리학 박사 학위(2008. 2)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도박 중독이다.
E-mail : ●추가

*** 송원영(宋元永) : 연세대학교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연구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2007. 2), 현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성범죄자 심리치료, 디지털 심리치료이다.
E-mail : ●추가

| 투고일 : 2024. 09. 06. | 심사일 : 2024. 09. 23. | 게재확정일 : 2024. 09. 30.